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장 영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력사는 장장 반세기가 넘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데서 과시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인민이 류폐없이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당안에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대렬의 사상적통일과 조직적 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당사업과 당활동의 주선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신것은 당안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확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선차적이고도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로서 그것은 당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당사업실태를 료해하시는 과정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포착하시고 당사업에서 주선을 세울것을 단호히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3(1964)년 6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이 사업은 우리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주선에 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가 과학적으로 제시되게 되었으며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56(1967)년 5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게 되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워주시고 비범한 통찰력과 예리한 정치적안목,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세련된 령도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제때에 폭로분쇄하시고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나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전당 김일성주의화로선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튼튼히 꾸러지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가는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은 절대로 인민들과 떨어져 물위에 뜬 기름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였으며 일군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해놓는데 있는것이지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정초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도 숙소를 렬차에 정하시고 자강도내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때 그곳 도당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도내 인민들이 성의껏 꾸려놓은 숙소에 가시여 점심식사도 하시고 휴식도 하실것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자신께서 어떻게 따뜻한 온

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하시며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자신께서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자신께서는 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고생으로 생각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기에서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든것을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 언제나 우리 인민을 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지 않게 인민대중을 경시하는 규정들을 다 고치도록 하시였으며 무슨 일을 해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주체95(2006)년 3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건설보다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에 더 마음을 쓰시며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신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음을 느끼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는 일군들을 제일 좋아하시며 그런 일군들을 만나시였을 때 제일로 기뻐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구봉령의 령길을 관리하는 가족소대원들이 도당책임비서를 《우리 도당책임비서동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제발 평양으로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제기를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구봉령가족소대원들의 제기는 자기 도당책임비서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자신과 당에 대한 신뢰이고 평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은 대중이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며 표창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을 하나 생산하여도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들에게 모든 기쁨과 행복이 실제적으로 안겨지게 하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주체98(2009)년 6월 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은 마땅히 철갑상어료리와 같은 세계적인 고급료리도 맛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 얼마나 자랑스런 현실인가고, 만난을 이겨내고 강성국가의 분수령에 오르게 된 오늘 자신께서는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혁명은 바로 이런 재미에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자신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위험한 독소로 보시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일군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세도를 부리면 인민들이 따르지 않고 멀리하게 된다고, 일군들은 맨밥에 된장을 찍어먹더라도 생활에서 언제나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따르는 어머니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을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선군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은 혁명을 위하여 조직된 전투적부대이고 당의 전투력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는 우리 당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워주시고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전당의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사상의 일치성, 행동의 일치성이 확고히 보장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대고조의 선봉투사가 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이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언제나 최우선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고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여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결사옹위를 절대적인 좌우명으로 삼고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들고나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모든 당사업을 선군혁명로선 관철에로 지향시켜나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총대가 약해 국권을 무참히 빼앗겼던 우리 조국이 천하무적의 국력을 갖춘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특기할 사변이며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선군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